

지역 매아리



고창경찰서, BEST 여청수사 선정

고창경찰서 여청수사팀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선발하는 베스트(Best) 여청수사팀에 올해 1/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창경찰서 여청수사팀은 성범죄, 학교 폭력, 가정폭력 사범검거 및 실종자출연 발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기해자 검거와 수사뿐 아니라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재범을 막고 피해자 상담과 치료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현 정부의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에 맞춰 충실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베스트 여청수사팀 선정 공로로 정진하 경위가 전북지방경찰청장상을 받았으며, 수사팀 3명은 모두 포상휴가증을 받았다.

박현수 고창경찰서장은 여청수사팀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열심히 해준대 대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창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이웃돕기 성금기탁 줄이어

결실의 계절 가을 고창군에서는 따뜻한 이웃들의 선행이 이어져 어려운 이웃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25일 고창읍 소재 (유)엘림건설ENG(대표 조보아)은 성금 500만원을, 성내면 소재 영농조합법인 아이브리(대표 장현정)는 성금 100만원을 고창군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유)엘림건설ENG 조보아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동절기 어려운 고창군민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정읍시, 신규 대상자 발굴 11월 한 달 '집중신청 기간' 운영

오는 11월부터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 의무자 기준(소득인정액)은 수급 신청한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의 소득, 재산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이런 사유로 제외된 대상자 중에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한 대상이나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많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달부터는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 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

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관련해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된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활용이나 민간 자원과의 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주거 약자 삶의 질 향상 앞장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부안군이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주거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10개 가구를 선정하고 17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각 읍면에서 접수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가구별 현황을 파악한 후 사업타당성, 소득수준, 장애등급, 타사업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원내용은 화장실 개조, 환관 및 출입문 경사로 보수, 안전손잡이 설치, 접근로 포장, 문틀 단차 제거, 싱크대 교체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군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1억 28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5600만 원을 투입해 지붕개량, 화장실 보수, 보일러 수리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현재까지 군은 올해 사업대상가구 66개 동 중 57개 동을 완료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관내 주거 취약계층의 이룩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을 신속히 완료해 저소득층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27일까지 하반기 도시민 귀농학교 운영

25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도시민 귀농학교가 운영된다.

이번 도시민 귀농학교에는 서울제대 군인지원센터에서 선발한 귀농희망 제대군인과 그 가족 38명이 참여한다. 도시민 귀농학교에서는 농촌 체험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심층 상담을 실시한다.

귀농귀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준다는 물론 귀농귀촌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도시민들에게 차분하게 향후 계획 등을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민 귀농학교는 정읍시가 지원하고 (사)정읍시귀농귀촌 협회회의 주

관으로 꽃두레행복마을권역센터에서 2박 3일간 일정으로 운영된다.

첫 날은 정읍시의 귀농귀촌지원 정책 안내와 선배 귀농인 사례발표, 농기계 조작 실습, 선도농가 방문을 통한 농업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에는 정읍역사문화연구소 김재영 소장이 정읍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특강도 가졌다.

둘째 날에는 타조농장 방문과 구아바, 고구마 수확, 구절초 꽃차 만들기, 감파지 등 실제 귀농 시 작물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단풍 명산 내장산과

단풍생태공원을 찾아 정읍의 맛을 즐기고, 떡 만들기 체험 등도 가질 계획이다.

개강식에서 김생기 시장은 "정읍은 고속열차와 호남 고속도로, 인근의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는데다 자연재해가 비껴가는 천혜의 농업생산력을 갖춘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은 "귀농인들이 정읍지역에 귀농귀촌하여 정착하는데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 의회 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
고창전통시장 29일까지 가을축제 행사

고창전통시장이 글루빈 소풍·관광 축제인 '2017 코리아세일 페스타'와 제44회 고창보양제 행사를 맞아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가을축제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고창전통시장 가을축제는 고창의 대표축제인 '고창보양제'와 연계해 고창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동시에 고창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선보인다.

행사 기간 내에 고창전통시장 모든 구역에서는 한일행사가 진행되며 '고창음성'과 고창전통시장을 잇는 스탬프 행사, 전통시장 상품권을 증정해 장보기 체험도 진행되어 흥미를 끈다.

오는 28일에는 상인회의 품물놀이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30분에 개막식과 국악 공연이 열리며 먹거리장터와 팽이 돌리기, 투호, 제기 차기 등의 전통놀이 체험행사로 함께 진행된다.

29일에는 먹거리장터,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노래자랑도 개최할 예정이다.

고창전통시장 최만영 회장은 "이번 행사로 주민과 관광객, 고창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교류와 소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에서 즐거운 민놀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운영

고창군이 고창읍 석정리 일원에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의 입주자 시작됨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는 총 10동 578세대로 이 중 2동 141세대가 사용승인 됨에 따라 입주자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어 다음 달 8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노인복지주택인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는 입주자들이 고령자로 직접 관공서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는 데 어려울 수 있어 군은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통해 입주자들의 조기 정착과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관계자는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는 인근에 계르마눔은천스파인 석정휴스파와 석정웰파크병원, 골프장 등 다양한 시설들

이 한 곳에 마련되어 있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이 매우 뛰어나 노후를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고창타워를 통해 시니어산업에 힘을 쏟고 있는 고창군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이름답고 청정한 환경과 건강, 복지, 여가 등 노인 복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도시로 오가는 교통망도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는 고창군은 은퇴자, 어르신들이 준비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화 사회의 선두적 고창"이라며 "입주자들의 고창군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변산반도국립공원, 국립공원 주간 행사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여행주간'과 연계하여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국립공원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공원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운영하여 대국민 탐방서비스를 제공한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2017년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추천하는 걷기 좋은 길 '적벽노을길'을 홍보하려는 취합 부스 및 걷기 행사를 운영 할 예정이며,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변산

반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사진 전시회를 내 소사 탐방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계획 하고 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윤지호 탐방서비스과장은 "가을철 국립공원 주간을 맞아 실시 되는 다채로운 행사에 많은 탐방객이 참여하여 깊어 가는 가을을 만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myeongju products.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various gift set prices like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